

학생회실을 설치하고 나서

전주서천초 회장 전OO

그동안 학생들이 마음껏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하고 아쉬웠는데, 올해 1학기에 푸른꿈회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생자치실의 구성을 계획하였다. 여름방학에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자치실이 완성되었다.

자치실은 가벽을 철거해서 훨씬 개방감 있고 누구나 드나들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었다. 또 폴딩도어를 설치해 푸른꿈회 회의실과 휴식공간을 나누었다.

휴식공간에는 소파, 책상, 의자 등을 놓아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했고, 회의실에는 칠판, 책상, 의자를 배치하였다.

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지만,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공간이 생긴 것이 만족스럽고 뿌듯하다.

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추진하는 학생 자치 활동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.